

로컬플러스

군산시, 명퇴공무원 퇴임식 개최

군산시가 29일 시청 대강당에서 2016년 하반기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퇴임식을 개최한다.

올해는 김진권 차지행정국장, 김홍식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오길환 세무과장, 이광태 주택행정과장 등 사무관급 이상 4명의 고위공무원 등이 후배들을 위해 명예퇴직 한다.

퇴직여정 공무원들은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군산시의 발전을 위해 함께 뛰었던 후배 공무원들과 별별의 점을 나누는 특별한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을 상반기부터 다시 시작된 퇴임식은 퇴직자와 가족 그리고 직원이 함께 참여해 명예로운 퇴임을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자리배치와 공로패 수여 등을 직급 순이 아닌 성명 순으로 진행하고 공로패에도 직급을 표시하지 않는 등 퇴직하는 모든 공무원들이 마음의 부담 없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명예롭게 공직을 마무리하는 김진권 차지행정국장은 “가정과 일을 모두 소중히 여기는 공직자, 서로 배려하고 도움을 주는 공직자,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공직자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군산시가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공복(公복)이라는 마음가짐을 잊지 말고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의산시, 내년 시정운영 방향의 길잡이

‘비룡승운’ 선정

《飛龍乘雲》

의산시가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 시정운영 방향의 길잡이가 될 사업성과를 비룡승운(飛龍乘雲)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비룡승운은 용이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날듯이 영웅이 때를 만나 권세를 얻는 의미로 한자(韓子)의 난세편(難勢編)에 등장하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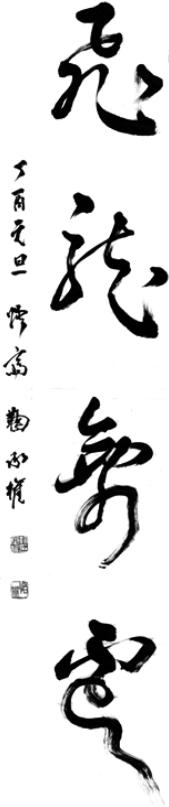
2017년 지역별의 호기를 맞은 의산시가 승승장구하고 모든 일이 잘 풀려 시민들의 삶이 편안해지길 바라는 간절한 소망과 바람을 담고 있다.

의산시는 올해 4월, 재선거로 취임한 정현을 시장 체제로 민선6기를 새롭게 출발했다.

변화와 격랑의 시기에도 국가식품플러스터 입주기업들이 속속 착공에 들어가고 기업유치에 종력을 기울여 산업단지 분양을 안정적 궤도에 안착시켰다.

정현은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나는 용처럼 의산시가 원대한 비상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의 화합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의산=장양원기자



경찰의 끈질긴 수색과 빌 빠른 대처로 가출 위기의 청소년이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군산경찰의 끈질긴 수색으로 실종 청소년, 가족의 품으로

경찰의 끈질긴 수색과 빌 빠른 대처로 가출 위기의 청소년이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군산경찰서(서장 김동봉) 여성청소년과는 지난 27일 저녁 6시 30분 경 군산의 한 여자고등학교 1학년 A(17)양이 가출 및 자살을 시도하는 문자를 부모에게 보낸 뒤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를 접했다.

신고를 접수한 여성청소년과 김판관 김대성, 최진성 형사는 20여 명의 기동타격대원들과 함께 즉시 수색에 돌입, A양의 휴대전화 최종 위치를 중심으로 인근 PC방, 당구장, 공원 등에 대한 수색에 나섰다.

김추우가 기승을 부린 가운데도 담당 경찰관들은 5시간에 걸친 끈질긴 수색 끝에 이날 밤 11시 40

/군산=문정곤기자



의산시청, 양계농가 돋기 삼계탕 시식 행사

진에 앞장섰다.

시에 따르면 AI에 감염된닭, 오리 등의 가금류는 유통이 불가능하며, AI바이러스는 75°C 이상으로 5분 이상 충분히 익으면 무해하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안한 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직원들이 솔선수범해 시식회를 갖게 됐다”며 “앞으로도 구내식당에서 닭과 오리고기 이용한 메뉴를 다양하게 제공해 가금류 농가의 시장을 더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의산=장양원기자

군산시 어린이·청소년의회, 5차 임시회 개최

군산시는 28일 월명동 소재 청소년자치연구소에서 ‘군산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제5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는 어린이 행복도시 군산에 비롯된 란 주제로 그간 어린이·청소년 의원들이 제안한 과제를 제안자가 발표 후 질의응답을 거쳐 어린이 정책 전문가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발표된 정책제안은 총 5건으로 공중화장실에 어린이용 편의시설 설치, 학교 복도 모퉁이 반ʌ형 설치 등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또한 이날 임시회에 함께한 전문가

들은 제안된 정책들에 대한 강평과 함께 어린이·청소년의회 역할 및 바람직한 정책제안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군산시는 제2차 임시회부터 제4차 임시회까지 어린이·청소년의회 시각에서 비롯되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개선방안을 고민하고 다양한 정책으로 제안될 수 있도록 어린이·청소년의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차정희 어린이행복부장은 “어린이·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정책들이 시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의산시, 이웃사랑 나눔 이어져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이 이어져 지역을 훈훈하게 하고 있다.

한우협회 의산지부(지부장 김재섭, 이하 한우협회)가 지역 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한우를 기탁하며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한우협회는 28일 의산시를 찾아 관내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관에 전달해달라며 한우(국거리, 불고기) 416kg(식가 1,500만원 상당)를 시에 기탁했다. 이날 오후 시청 시장실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정현을 시장과 진택섭 지부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진택섭 지부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어려운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누기 위해 기부를 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한우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의산시 낭산면 이장협의회(회장 차재용)도 낭산면사무소를 찾아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달라며 친절한 10kg 86포(1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낭산면 이장협의회는 작년에도 소외계층을 위해 100만원을 기부하는 등 매년 기부문화에 동참해 이웃사랑을 품소 실천하고 있다.

차재용 회장은 “이장단의 작은 정성이지만 올해도 변함없이 관내 어려운 소외계층들에게 전달돼 뜻밖이다”며 소감을 밝혔다.

/의산=장양원기자

농업기술원 종자사업소, 벼 종자 준비·공급

올해 생산한 12개 품종 150여톤… 내년 1월 중 신청·2~3월 공급 예정

전북도농업기술원(원장 김학주)종자사업소에서는 16년도에 생산한 조생종벼(운광, 조평, 중생종해풀), 중만생종(안백, 흑풀, 신동진, 새누리, 수광, 새광) 그리고 동진찰벼와 보람찰벼 등 12개 품종 150여톤을 생산하여 종자점검사가 완료되는 내년 1월 중에 신청을 받아 2~3월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에는 벼 수확기에 찾은 비로 수확이 늦어지고 신동진 품종 등 우리도 주요 품종에서 수확기나 다수

발생하여 보급종 규격품에 들지 못하여 종자소요량 대비 확보량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도에 전북도에 필요한 종자량은 6,050톤정도이나 보급종 확보량은 2,310여톤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채종포 공급기능량 1,710여톤 정도로 약 1,800여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족한 종자는 개별 농가에서 일찍 수확하여 비를 맞추지 않은 종자나

보급종 채종농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한 채종포 또는 RPC 채종포, 영농조합 채종포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자를 확보하여 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

특히 올해에는 수발이가 적게는 4% 많게는 11%까지 발생했으므로 밭이 85% 이상인 경우 약 10%정도 증량한 10a당 6kg정도 파종하여 줄 것과 묘관수를 20~25관정도 되게 준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의산=장양원기자

김양원 군산부시장, “전북도 가서도 군산조선소 문제 해결 적극 나설 것”



“지난 2년간 2월 동안 군산시 부시장으로 일하면서 군산시가 전북경제를 이끌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새해 1월 29일자 전북도자치행정국장으로 영전하는 김양원 군산부시장은 전북도의 경제일번지인 군산경제가 살아야 전북경제도 활성화 될 수 있다며 전북도에 가서도 군산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뜻을 피력했다.

지난 2014년 10월 군산시 부시장으로 취임한 김 부시장은 행정 35회 출신으로 공직에 입문한 뒤 전북도 투자유치국장, 대회협력국장, 문화체육국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친 전북도정 행정을 출신이다.

김 부시장이 취임할 당시 군산시는 산업단지 전기 공급을 위한 철탑문제와 군산전북대병원문제, 의취문제로 인한 페이퍼코리아 이전문제 등 각종 혼란문제가 산적한 상태였다.

김 부시장은 “이임을 앞둔 시점에서 생각해보니 문동신 시장님을 보좌하면서 철탑과 군산전북대병원 페이퍼코리아 이전,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

통 등 군산의 혼란문제들이 재임 중에 해결된 것에 뿐만 아니라 감사한 일”이라고 회고했다.

김 부시장은 “만약 아쉬운 것은 전북수출의 9%에 달하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문제가 참으로 기습 아프다”며 “전북도에 가서도 군산조선소 문제에 대해 솔직히 도지사님과 함께 문제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시장은 “2년 2개월 동안 부족한 저에게 언제나 힘을 실어준 문동신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 군산시민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장산업단지 연안도로 건설공사 완료… 31일 개통

군산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경영관리과정 총동문회 봉사단(단장 송준기)은 28일 나운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은빛사랑 장수사진 전달식을 가졌다.

군경총 봉사단은 지난달 수송동 롯데마트 5층 보보사진관에서 성선면, 나운동, 삼학동, 미성동 4개 지역 저소득 어르신 100여 명을 모시고 장수사진을 활용해 이날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난해 군산시와 군경총 봉사단이 협약을 통해 매년 100명 씩 총 500명의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수사진 활용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펼친 것이다.

김주홍 군산시 복지지원과장은 “군경총 봉사단의 뜻 깊은 재능기부에 감사드리며, 행정에서도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경총 봉사단은 그동안 취약계층 자녀 장학금 전달, 사회복지시설 나눔잔치, 결손가정아동과 목욕 함께하기, 사랑의 집 고쳐주기 등 어려운 이웃의 벗이 될 수 있는 나눔활동을 꾸준히 전개 오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군산=문정곤기자

의산, 자체체 합동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의산시는 2016년도 지방자체단체 합동평가 도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 및 재정 인센티브를 받는다. 28일 밝혔다.

지체체 합동평가는 정부업무평가 기관별로 따라 국가수입사무, 국가보조사업, 국가 주요사업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27개 중앙부처가 주

해서 지난 2008년부터 사업을 추진했으나 경포대교 통과높이로 인한 통행장애에 보상 민원 등으로 사업이 수차례 연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하비성 의산국토청장은 “군장산업단지 연안도로는 군산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산업물동량의 수송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아울러 탁 트인 금강하구 연안 조망으로 군산시민에게 편리한 도로환경을 제공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

시는 그동안 자체체 합동평가에 대비하여 부시장 주재로 매월 추진상황 보고회를 정례화하고 부진지표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했다.

특히 전 부서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지표는 부서간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서 추진하는 등 실적향상을 위해 철저히 대비하고 관리해 왔다.

/의산=장양원기자

사용되고 주민들도 사용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해경은 관내 유람선 업체로부터 발전기금을 횡령한 군산 모 지역 미يل강 A씨(60)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군산경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유람선 업체로부터 2011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총 5700만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람선 사업자는 선착장 이용과 주변 환경 개선,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 또는 사용허가 등을 이유로 기항·寄港지역 미يل강에 발전기금을 내고 있다. 하지만 미يل강 출입이 기부형식이다 보니 철저한 감시나 회계 관리 없이

/군산=문정곤기자